

‘소확행’으로 설렘 두 배! 새 학기 필수 아이템 추천

3월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.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. 새로운 교실에서 어떤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?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클지 모른다. 잠시 걱정은 내려놓고, 새 학기 준비물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. 소소하지만 있으면 쓸모 만점인 학교생활 필수템을 추천한다.

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@naeil.com

어흥템

‘호랑이의 해’니까 더 씩씩하게!

검은 호랑이의 해를 기념한 각종 아이템이 등장하고 있다. 트렌드를 좇아 새 학기에는 호랑이 그림이 새겨진 물건을 하나쯤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건 어떨까.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씩씩하게 학교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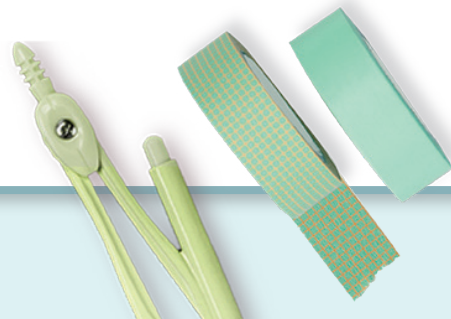
153 어흥이 에디션



호랑이의 해를 기념해 모나미에서 만든 5색 볼펜 세트. 브라운·피콕 블루·골든 옐로·레드·블랙 등 5가지 컬러의 볼펜이 한 세트다. 활용도와 휴대성이 높은 ‘틴 케이스’에 들어 있어 필통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꿀템. 볼펜심의 두께는 0.5mm로 깔끔한 필기감을 느낄 수 있다. 가격 7천 원.

똥강이 텀블러

락앤락과 무직타이거의 콜라베이션 제품. 바닥 지름 6cm, 높이 22.7cm이고, 무게는 256g, 용량은 400ml다. 슬림하고 가벼운 게 특징이며 보냉과 보온이 모두 된다. 바닥에 소음 방지용 실리콘 처리가 돼 있어 교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. 가격 2만4천 300원.





혼자 공부
메타 스터디
플래너

공신템

공부 각오 '작심일년' 가즈아~

모두가 새 학기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다짐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다. 올해는 공부가 잘 되도록 돕는 신박템으로 무장하고 공신에 도전해보자.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는 공부템을 소개한다.

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똑똑한 플래너. 학습 내용을 '충분히 이해한 내용' '헷갈리는 내용' '모르거나 어려운 내용' 등 세 단계로 나누어 기록할 수 있다.

정기고사 결과를 과목별로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돼 있다.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. 인디고 제품으로 가격은 7천540원.

지우거리는 볼펜



지우고 싶은 부분을 펜 끝의 지우개로 문질러주면 거짓말처럼 글씨가 사라진다. 마찰 시 발생하는 온도 변화를 이용해 잉크색을 없애는 원리로 지우개 가루가 생기지 않는다. 단, 고온에서 글씨가 지워질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 작성은 피하는 게 좋다. 한국 브랜드 식스비에서 만들었다. 가격 개당 1천280원.

방역템

오미크론, 그게 뭔가요?

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각하다.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되더라도 방역 문제가 걱정이다.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 위생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다. 오미크론이 새 학기 신나는 기분을 망치지 않도록 막아줄 방역 필수 아이템을 찾아봤다.



청소년용 컬러마스크

개인 방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마스크다. 흰색과 검은색만 사용해 봤다면 기분 전환을 위해 화사한 컬러 마스크를 착용해보는 건 어떨까. 핑크·퍼플·베이지·민트·블랙·화이트 등 6개의 컬러와 XS부터 XL까지 5개의 사이즈가 있다. 얼굴에 딱 맞는 걸로 품나게 쓸 수 있다. 제품명은 '헬스키퍼에어'이고 휴먼코리아에서 만들었다. 가격 개당 500원. @

마스크 넥 밴드



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지만 잠시 벗어둔 마스크가 없어져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.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지만 마스크를 목에 걸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더 좋다. 아에르의 마스크 넥 밴드는 무독성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좋다. 에메랄드 민트, 자카란다 퍼플, 물리 핑크 등 7개의 컬러 중에서 고를 수 있다. 가격 개당 2천100원.